

현대중국어 相의 제 문제 고찰

崔圭鈔*

〈 목 차 〉

1. 서 론
2. 사상과 시대의 구분
3. 사상 구조와 수량사
4. 시대표지 '了'와 결과보어
5. 결과보어 '了'
6. 결 론

1. 서 론

竟成(1996)에 따르면, 현대한어에서는 시간개념을 나타내는 요소가 있어야만 독립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래 문장을 살펴보자.

- (1) a. *老王來.
b. 老王明天來.
- (2) a. *老王買東西.
b. 老王買了好多東西.
- (3) a. *楓葉紅.
b. 楓葉紅了.

(1)은 특수한 언어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된 문장이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2)는 동사가 제한적인 성분 없이 단순 빈어만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비문이 됨을 보여주고 있고, (3)은 형용사 역시 단독

* 高麗大 中文科 教授

으로 독립된 문장을 구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물론 (1)에서 (3)의 각 a문장은 적절한 문맥을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문맥 없이도 독립적으로 성립되려면 위와 같이 부가적인 성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石毓智(2000)는 현대한어의 술어구조는 일반적으로 경계화되어 있으며, 이런 현상은 근대한어의 발전시기에 새롭게 생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발전과정 이전의 문장들이다.

- (4) 左太冲作三都賦初成。(世說新語·文學)
좌사가 삼도부를 짓기를 막 이루었다.
- (5) 却院外繞樹三市了。(祖唐集·長慶和尚)
뜰 밖으로 물러나 나무 주위를 세 바퀴 돌기를 마쳤다.

위 문장의 구조를 石毓智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6) $S+[(V+O)+(X)]$

그런데, 위의 X성분은 중심술어인 제1동사와 의미상 긴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후대로 오면서 점차 동사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 (7) $S+V \cdot X+O$

이렇게 동사와 결합하여 통사적으로 의존적 요소가 되면서 X의 품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시태표지와 결과보어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X 위치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요소들이므로, 이들의 중심동사와의 결합으로 인해 기타 X 위치의 요소들(수량사구, 개사구, 시간사 등)도 위치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인해 중국어의 술어구조가 일반적으로 경계화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사상과 시태의 구분

경계성은 명사와 동사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명사가 가리키는 전형적인 사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크기, 높이, 두께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행위는 이와 달리 시간적인 특징을 갖는다. 하나의 행위동작은 시축상의 어느 위치를 차지하며, 행위동작 내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단계, 지속단계, 종결단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렇게 명사의 경계성은 공간적으로, 동사의 경계성은 시간적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하나의 문장이 나타내는 시간구조는 단지 동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중에 함께 나타나는 기타 문장성분이 시간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동사와 함께 시간구조를 결정한다. 陳平(1988)에 의하면, 사상구조를 결정할 때 차지하는 비중의 대소에 따라 문장성분을 나열하면, 1) 동사 2) 목적어, 보어 3) 주어 4) 기타 문장성분의 순이다. 이들은 서론에서 살펴본 현대중국어 문장의 구성에서 필수적인 시간개념 표시 요소에 대한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살펴본 시간개념 표시 요소, 혹은 경계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태표지를 기타 시간개념 표시 요소들과 대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 沈家煊(1995)의 예를 살펴보자.

- (8) a. *小張弄髒衣服.
 b. 小張已經弄髒衣服.
 c. 小張弄髒了衣服.

그는 '已經'과 '了'를 부가한 문장에서, 술어동사 뒤의 단순 형태의 명사는 경계성을 갖게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수량사나 '已經' 등 시간부사와 '了' 등의 시태조사는 모두 경계성이 없는 술어에 경계성을 부여하는 '경계화' 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어 문장의 시간구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경계화' 요소들 가운데 '시태 조사'는 독립시켜 '시태 구조'에서 따로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상 구조'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은 이후 다른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관습적인 구분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3. 시상 구조와 수량사

현대중국어에는 시제를 표시하는 형태적인 표지가 없기 때문에, 상(aspect)이 시간구조의 분석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문법적 상과 어휘의미적 상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우리가 말하는 '시상'이란 바로 '어휘의미적 상'을 말한다.

시상은 흔히 Vendler(1967)의 4분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 네가지는 각각 狀態(state), 行爲(activity), 成就(accomplishment), 達成(achievement)을 말한다. 중국어의 시상에 관한 논의에서 鄧守信(1986)은 이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陳平(1988)과 Smith(1991)는 각각 5분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등수신은 네 가지 유형으로 시상 구조를 분류하였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9) 他去年學法語.
- (10) 他學會法語了.
- (11) 小李病了.
- (12) 他不喜歡北方菜.

(9)는 活動(activity) 상황의 예인데, 이러한 동작은 그 자체가 동작의 목표이며, 다른 목표가 없다. 가령 '走路'는 특정한 지점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는 순수한 동작 과정 자체만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10)과 같은 完結(accomplishment) 상황은 어떤 동작의 목표에 도달함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他去年學法語'는 작년의 어느 시점에서도 '불어를 배우는' 동작이 존재하지만, '他學了兩年的法語'에서는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이 상황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11)은 達成(achievement) 상황의 예로써 어떤 동작에 대해서

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출현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2)는 狀態 (state)의 예이며, 이 상황은 어느 정도 항구불변한 상황으로 존재한다.

주목할 것은 '完結'에 대한 설명에서, 등수신은 수량사구의 추가로 시상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시상 분석의 대상을 동시에만 국한할 수 없으며 문장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他學了兩年的法語를 2년이 채워져야만 성립하는 하나의 상황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위 문장을 '學法語와 관련지어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문장 전체의 시간구조를 통해 시상을 구분하고자 했던 鄧守信과 달리 陳平(1988)은 문장의 시간 구조를 시상(phase), 시제(tense), 시대(aspect)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시상과 시대를 구분하고, 문장의 상황 유형을 판단할 때 먼저 해당 문장의 시대 부분을 배제한 나머지 어휘적인 문장 구성 소들만으로 분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다섯가지 상황 유형은 狀態 (state), 活動(activity), 結束(accomplishment), 複變(complex change), 單變(simple change)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3) a. 高興了半天了.
b. 坐了一下午了.
- (14) a. 他抽煙抽了一上午.
b. 他教書教了二十年了.
- (15) a. 小剛每天繞着操場跑三千米.
b. 這幾本書我讀了三, 四年了.
- (16) a. 稻種改良了三年多了.
b. 信送來很久了.
- (17) 手錶已經丟了兩天了.

(13)에서 (16)까지는 陳平이 제시한 예문으로, 각각 狀態, 活動, 結束, 複變의 상황을 예시한 것이고, (17)은 마경주의 예문으로 單變을 예시하였다. 그런데, 위의 예문들에 대한 설명은 鄧守信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만약 위에서 살펴본 鄧守信의 설명을 따라 (13a)의 예문을 분석하면, '高興'은 그 자체로 상태 상황이지만, '高興了半天了'는 '반나절'이 다 되어야 존재하는 상황이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므로 '結束'의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a)의 예문에서도 '抽煙'이란 동사구 자체는 '活動' 상황이지만, '오전'이 다 지나야 '抽煙抽了一上午'의 상황이 존재하게 되므로, 문장 전체는 '結束'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13)과 (14)의 예문에 대해 陳平은 수량사구의 추가로 상황 유형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가령 (13a)의 경우 수량사구는 '狀態' 상황이 지속된 시간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반나절 기뻐했다'는 자체를 하나의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14) 역시 '오전 내내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하나의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간사는 단지 담배를 피운 '活動' 상황의 지속시간일 뿐이라는 것이다.

(16)과 (17)에서 시간사는 동작이 발생한 후 그 결과상태가 지속된 시간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複變'과 '單變'의 상황은 진평에 의하면 각각 「+完成」, 「-完成」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작은 의미상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뒤의 시간사는 해당 동작의 지속시간보다는 그 동작의 결과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수량사구, 특히 시간사구는 진평에 의하면 그것이 명사를 제한하건 동사를 제한하건 간에 시상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예문 (15)를 살펴보자. 먼저, (15a)의 경우 '跑는' '活動'의 상황인데, 문장 전체로 보면 '三千米'라는 목적어를 가짐으로써 '結束' 상황의 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b) 역시 '讀은' '活動'의 상황이며, '讀了三, 四年了' 역시 '活動' 상황이 지속된 시간일 뿐이지만, '這幾本書'라는 (의미상의) 목적어가 동사를 제한함으로써 '結束' 상황의 예가 되었다. 필자는 이 점에서 陳平의 견해에 보다 동의하는데, 즉 시간사구는 어떤 '상황'이 지속된 시간만을 나타낼 뿐이지 시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는 데 반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사구는 시상 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 어떠한 명사구가 시상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8) a. 他寫了一封信.
b. 他畫了一張畫.

위 예문의 동사들인 '寫', '畫'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活動(activity) 상황의 예이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상황 자체에 자연적인 결속점이 없어서 시작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나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예문처럼 수량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하면 해당 동작의 범위가 제한되어 자연적인 결속점을 갖게 된다. 즉, '편지 한 통을 쓴다'는 것은 편지 한 통을 다 쓰고 나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금 아래 문장을 생각해 보자.

- (19) a. 他寫了一封信, 可是沒寫完.
 *그는 편지 한 통을 썼는데, 다 쓰지는 못했다.
 b. 他畫了一張畫, 可是沒畫完.
 *그는 그림 한 장을 그렸는데, 다 그리지는 못했다.

(18)만을 보면 '寫了一封信'은 자연적인 결속점이 있는 상황이다 '완성상 표지(perfective marker)' 了를 부가했으므로 '편지 한 통을 쓰는' 상황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19)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상황이 완료되었음을 부정해도 전체 문장은 모순됨이 없이 성립한다. 즉, 수량명사구의 부가만으로는 시상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어떤 상황이 명확히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려면 별도로 '결과보어'를 부가해야 한다.

- (20) a. *他寫完了一封信, 可是沒寫完.
 b. *他畫完了一張畫, 可是沒畫完.

위 예문에서 동사구에 결과보어를 부가하면 상황 내적인 결속점을 명확히 표시하므로, (19)와 달리 그 상황의 완료를 부정하면 전체 문장은 모순이 되어 비문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19)의 경우 우리말 번역에서 보이는 모순이 중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Sybesma(1997)에 의하면 여기에는 두 방향으로의 고려가 필요한데, 첫째는 동사이고 둘째는 목적으로 쓰인 명사구이다.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1) a. *他吃了一條魚, 可是沒吃完.
 b. 我寫了一封信, 可是沒寫完.

동일한 문장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문 a는 해당 동작의 완료를 부정할 경우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분명 동사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吃'는 의미상 그 동작으로 인해 대상인 목적어가 소실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동사의 특정 의미가 위 예문에서의 문법성의 차이를 가져온 것 같다. 더욱이 Sybesma는 (21a)를 올바르지 못한 문장으로 보고 있지만, 필자가 중국어 화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문장은 약간 어색하기는 하나 가능한 문장이라고 한다.

이제 위 예문에서 목적어로 쓰인 수량명사구의 수량사를 제거한 다음 문장을 생각해보자.

- (22) a. 他吃了魚, 可是沒吃完.
 b. 我寫了信, 可是沒寫完.

단독 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경우, '吃'는 '寫'와 마찬가지로 해당 동작이 나타내는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그럼 단독 명사는 왜 동사에 자연적인 결속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중국어에서 단독 명사는 흔히 구체적 인 사물을 가리키기보다는 단지 추상적으로 그러한 물질을 나타내는 의미상 허화된 목적어로 쓰인다. 따라서 이러한 명사구 자체의 비경계성이 동사구에도 반영되어 결속점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21b)와 (22b)의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일단 두 문장은 모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22b)가 (21b)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두 문장의 차이를 살펴보면, (21b)에서는 수량사가 명사를 제한하고 이어 이 명사구가 동사를 제한함으로써 그것이 가리키는 상황에 '경계'를 부여하였는데, 이와 달리 (21a)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허화된 목적어로 쓰인 단독 명사가 동사에 경계성을 부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성이 없는 동작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완성을 부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여겨진 것이다.

이상의 관찰은 앞서 했던 예측에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앞서 '活動' 상황의 동사에 동작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사구를 부가하면, 시상 구조가 바뀌어 '結束' 상황이

된다는 진평의 견해를 우선 인정하고, 이 문제를 명사구와 동사의 의미라는 두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그러나, 우선 명사구의 경우 (단독 명사와 수량명사구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시상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았으며, 여러 동사에 따른 문법성의 차이도 각 동사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된 해석의 차이에 불과할 뿐임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둘러 어느 쪽으로 단언하기보다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4. 시태표지 ‘了’와 결과보어

수량사 외에도 경계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에는 시태표지 ‘了’와 ‘결과보어’가 있다. 이제 먼저 시태표지 ‘了’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단, 문장 끝에 위치하여 어기조사로 쓰이는 ‘了’는 이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시태조사 了는 흔히 동사의 뒤에 붙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了가 반드시 ‘완료’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

- (23) 張三殺了李四兩次, 李四都沒死.
- (24) 我買了三本書, 可是沒買到.
- (25) 你吃了飯再去吧.
- (26) 這個星期只晴了一天.

먼저 예문 (23)과 (24)를 보면, 시태표지 了는 동사인 ‘殺’, ‘買’가 나타내는 동작이 완료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25)는 ‘연속 사건 중 첫째 사건’에 쓰이는 了의 예를 보여주는데, ‘吃’라는 동작은 발화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역시 了가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6)에서는 술어가 동작을 나타내지조차 않는다. ‘상태’ 상황을 나타내는 술어 뒤에서 了는 더더욱 완료를 의미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了의 의미를 '실현'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은 劉勳寧(1988) 등에서 제기되었는데, 了가 나타내는 '완료' 의미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了 자체의 고유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23)과 (24)의 경우 了는 각각 '殺李四兩次', '買三本書'라는 상황이 있었음을 나타낼 뿐이지 그 상황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6)에서도 '了'는 '晴一天'의 상황이 실현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굳이 '완료'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런 해석이 가능해진다. 예문 (25)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吃飯'은 분명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연속 사건'에서 중심 사건은 '去'이고 '吃飯'은 '去'라는 동작이 일어날 시점에서 보면 이미 '실현'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했다시피 중국어 문장에서 어떤 상황의 '완료'를 나타내려면 별도로 결과보어를 부가해야 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7) a. 忙完了我就來找你.
바쁜 일이 다 끝나면 내가 널 찾을게.
b. 忙了我就來找你.
바빠지면 내가 널 찾을게.

만약 了도 '완료'의 의미가 있고 결과보어도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면 위 두 문장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了의 기본적인 의미는 완료가 아니라 '실현'이다. 따라서, 결과보어가 있는 (27a)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데 반해, (27b)에서는 '忙'의 상황이 단지 '실현'됨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忙'의 상황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언급했듯이 시태표시 '了'와 결과보어는 비슷한 의미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로 인해 시태 구조와 시상 구조의 분석에서 종종 서로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了'와 결과보어의 의미,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시상 구조와 시태 구조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문장을 검토해 보자.

- (28) a. 我昨天回到了上海.
 b. 我昨天回到上海.

결과보어의 기능은 '완료'로 시태 표지 了의 기능은 '실현'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면, 위 예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문장은 모두 결과보어가 있지만, 차이점은 b에는 了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럼 b에는 '실현' 의미가 없는 것일까? 두 문장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了가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위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으로 발견되는데, 즉 결과보어가 있는 문장에는 了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결과보어가 있는 문장은 그 문장의 상황이 '실현'되었음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결과보어가 상황의 '완료'를 나타내므로 해당 문장은 일반적으로 '실현'의 의미를 갖게 되며, 따라서 굳이 了를 부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5. 결과보어 '了'

이제까지는 了와 결과보어의 의미, 기능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了가 결과보어처럼 기능하는 예가 있다.

- (29) a. 你不愛聽可以關了收音機.
 b. 你不愛聽可以關上收音機.

위에서 '了'가 있는 문장 a는 앞서 살펴본 '실현'이란 의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 '關了收音機'는 양상 동사인 可以의 영역 안에서 비실제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문장 중의 了가 '실현'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30) a. 我想明天賣了那輛車.
 b. 我想明天賣掉那輛車.

예문 a에서 '賣了那輛車'는 미래의 상황임은 물론 '想'의 영역 내에서 역시 비실제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의 '了' 역시 '실현'이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

呂叔湘(1980)은 이러한 현상이 특정 동사에게서만 나타남을 관찰해내고, 이러한 동사들 뒤에 '了1'이 부가하면 동작에 결과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이 결과보어의 의미, 기능을 갖는 了는 '了3'으로 구별하여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了'의 분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了1'이나 '了2'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了와 결과보어는 의미, 기능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보어 뒤에서는 了의 출현이 비교적 자유롭다. 아래 (31)은 편의상 앞의 예문 (28)을 다시 옮긴 것이다.

- (31) a. 我昨天回到了上海.
 b. 我昨天回到上海.
 (32) a. 你不愛聽可以關上(*了)收音機.
 b. 你不愛聽可以關了收音機.

(31)에서는 了의 출현이 자유롭지만, (32a)에는 了가 출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了의 기본의미가 '실현'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즉, 비실제적인 상황에서 '실현'을 나타내는 '了'가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32b)의 了는 분명히 '了1'과는 다르게 '결과보어'의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了가 있는 문장을 부정하게 되면, 보통 동사 앞에 '沒(有)'를 붙이고 동사 뒤의 了는 삭제한다.

- (33) a. 我寫了一本書.
 b. 我沒有寫一本書.

그러나, '결과보어'의 기능을 보이는 이 '了'는 부정문 내에서도 생략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了1'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 (34) a. 我還沒有忘了那件事.
b. 我還沒有賣了那輛車.

6. 결 론

현대한어의 술어구조는 근대한어 시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경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근대한어의 발전시기에 새롭게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들 중에서 시상 구조와 시태 구조에서 역할이 큰 '수량 명사구'와 '결과보어', '시태 조사' 등에 주목하였다. 먼저 '수량 명사구'와 '시태 빈어'의 비교를 통해 '시상 구조'에의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결과보어와 시태 표지 '了'의 의미, 기능을 대조하여 그 차이를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시태 표지 '了'와는 다르게 결과보어와 유사한 기능을 보이는 '了'에 대해 관찰해 보았다. 그러나, 각각의 주제들은 앞으로 더욱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

- Smith, Carlota.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Sybesma, Rint, "Why Chinese Verb-LE is a Resultative Predicat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6, 1997.
- 竟 成, <漢語的成句過程和時間概念的表述>, 《語文研究》 1, 1996.
- 鄧守信, <漢語動詞的時間結構>, 《第一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 (北京: 語言學院出版社, 1986.)
- 石毓智, 《語法的認知語義基礎》, (江西: 江西教育出版社, 2000.)
- 沈家煊, <"有界"與"無界">, 《中國語文》 5, 1995.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80.
- 劉勛寧, <現代漢語詞尾"了"的語法意義>, 《中國語文》, 1988.
- 陳 平,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 6, 1988.